

개항장(開港場) 고베(神戸)에서의 남녀관계론의 전개와 문명개화*

- 『고베유신닛포(神戸又新日報)』를 중심으로-

송혜경**

目次

1. 서론
 2. 문명의 개항장 고베
 3. 상(商)도덕으로서의 성(性)도덕
 4. 문명의 항구에서의 남녀교제
 5. 맺음말
-
-

1. 서론

일본의 개항장은 외국과의 조약체결에 의해 열린 도시공간이다.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美日修好通商條約)¹⁾을 시작으로, 서구 여러 나라와 수호통상조약을 통해 개항을 결정한 일본은 가나가와(神奈川), 나가사키(長崎), 하코다

* 이 논문은 2007년도 BK21 고려대학교 중일 언어·문화교육연구단 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일본근대문학전공

1) 1958년 7월 「미일수호통상조약」과 「부속무역장정(附屬貿易章程)」이 체결되었다. 조약은 14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 3조를 보면 「일미화친조약」에 의해 개항된 시모다(下田)·하코다테(函館)의 가나가와(神奈川)·나가사키(長崎)·니가타(新潟)·효고(兵庫)를 개항하고 에도(江戸)·오사카(大阪)를 개시(開市)함과 동시에, 개항장에 거주지를 두어 자유로운 거주·무역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하고 있다. (神戸外国人居留地研究会 『神戸と居留地』(神戸新聞総合出版センター, 2005, 12-13쪽 참조)

테(函館), 니가타(新潟) 및 효고(兵庫)를 개항장으로 열어나간다. 이러한 개항장은 오랜 쇠국 하에 있었던 일본에게 서양문명을 받아들이는 입구이면서 문명개화의 거점지이기도 하였다. 개항장을 통해 서양으로부터 전해진 것은 각종 물자와 법률, 제도만이 아니었다. 남녀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연애>라는 관념 역시 당시까지 일본에는 없었던²⁾ 서양으로부터 <박래(舶來)>된 것이었다. 남녀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이 박래품은 개항장을 통해 전달 보급되었던 것이다.

개항장 중에서도 1868년 1월 1일 효고개항의 결정과 함께 실제적인 무역항으로서 조성된 것은 한 어촌마을이었던 고베이다. 따라서 고베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의 대부분은 다른 여러 지방으로부터 이동해온 이주민들이었다. 메이지의 시작과 더불어 <만들어진> 도시인 것이다. 게다가 고베는 다른 개항장에 비해 일본인과 외국인의 일상적인 접촉이 특히 많았다.³⁾잡거지(雜居地)라는 지역을 통해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했던 것이다. 외국인에게 열려져 있으면서 근대의 시작과 더불어 만들어 가는 개항장 고베에서 메이지 17년(1884)년 『고베유신닛포(神戸又新日報)』(이하 유신닛포)가 간행된다.

『유신닛포』는 1884년부터 1939년까지 고베에서 발행된 일간신문이다. 간행 초기는 사실상 입헌개진당의 기관지(機關紙)적인 성격을 가진 신문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효고현의 대표적인 기관지가 되었다.⁴⁾ 특히 고베라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기반으로 발행된 신문이었기 때문에 고베의 개량을 주안으로 하고 있었다. 본고는 고베의 개량 중에서도 남녀관계에 대한 인식의 양상을 1886년부터 1889년까지⁵⁾의 『유신닛포』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메이지 20년(1887)전후는 일본에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남녀관계에 대한 다수의 평론을 발표⁶⁾하고 여성의 권리 신장과 계몽을 목표로 하는 『여

2) 야나부 아키라(柳夫章)는 ‘연애’라는 것은 당시의 신조어였고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의미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柳夫章「翻譯語成立事情」, 岩波親書, 1982, 91쪽-92쪽참조)

3) 미일수호통상조약의 제 3조에 의거하면 개항장에는 거류지를 두어야 하는데 외국인 거류지(居留地)를 만들어서 외국인의 거류와 무역할 수 있는 구역을 일정지역으로 제한했던 다른 개항장과는 달리 고베는 거류지 뿐 아니라, 잡거지(雜居地)라 불리는 지역이 있어 이곳에서는 외국인과 일본인이 혼재해 있었다. (『兵庫県の歴史』, 山川出版社, 2004, 285쪽)

4) 奥村弘『開港場・神戸からみた「アジア」-『神戸又新日報』を中心に-』(『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緑蔭書房, 1996), 181쪽

5) 1886년 1월 이전의 『유신닛포』는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일본 근대의 출발시기·문명개화기를 폐번치현(1871)에서 헌법발포(1889)의 시기로 정한 히로타 마사키(ひろたまさき)씨의 논에 의거하여 분석의 대상을 1886년에서 1889년까지로 한다. (ひろたまさき『日本女性史4 近代』, 東京大学出版会, 1982, 1쪽)

6) 『日本婦人論』1885, 『日本婦人論後篇』1885, 『男女交際論』1886, 『男女交際余論』1886, 『日本男子

학잡지』(1885~1904)가 간행되는 등, 일본문화사에 있어 남녀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지속적인 변혁을 이루어 가는 고베라는 도시공간 속에서 『유신닛포』는 남녀관계를 어떻게 인식시키고 개량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만들어져 갔던 남녀관계에 관한 다양한 인식들 속에서, 개항장이라는 지역적인 특수성 하에서 발화되었던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그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2. 문명의 개항장 고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베는 요코하마(横浜), 나가사키(長崎), 하코다테(函館), 니가타(新潟)에 이어 개항하게 된 개항장이었다. 중국을 비롯하여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등으로부터 모여든 외국인들의 각축장이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인종들 속에서 『유신닛포』는 고베를 어떻게 위치시키고자 하였으며 또 어떻게 개량하고자 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서양과 수호통상조약(修好通商條約)을 맺은 일본은 효고를 개항할 것을 결정하였지만, 개항이 실현된 것은 이보다 훨씬 뒤의 일이었다. 과거의 전통이 남아있는 기내(畿内)지방과 가까운 효고는 양이론(攘夷論) 세력의 방해로 천황으로부터 개항을 위한 허가(勅許)를 받지 못하여 개항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실제 개항한 것은 조약체결로부터 10년이 지난 1868년 1월1일의 일이었다. 그것도 실제적인 무역항으로 조성된 것은 효고 시가지로부터 동쪽으로 3.5km나 떨어진 고베무라(神戸村)라는 한 어촌이었다. 개항장으로서 후발주자라고 인식한 고베는 도래해야 할 고베의 모습을 ‘문명의 항구’라 이름 짓고 외관과 체제를 갖추어 나간다. 또한 ‘신개척지로 세상의 이(利)’를 추구하기 위해 ‘동서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에게 일본의 대표항구의 인민이라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이는 여러 다른 지방에서 이동해온 이주민이 문명의 항구인 고베의 고베인이 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문명의 항구의 인민이라는 의식은 몇 가지 지역적인 특수성과 함께 발전한다.

『유신닛포』의 「개항장인 고베」⁷⁾라는 기사는 모든 길은 고베로 통한다는 지리적 특수성을 강조한다. ‘동(東)으로는 오사카(大阪), 교토(京都)로부터 도쿄

論』1887

7) 「開港場たる神戸」(『神戸又新日報』1886.3.24)

(東京)에 이르고 서(西)로는 추고쿠(中國), 시코쿠(四國)로부터 규슈(九州)에 이르는 곳'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육로(陸路)와 해로(海路)의 모든 면에서 통로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을 가고자 하는 외국인(外人)도 이곳을 들러야만 하는, '외인들의 왕래가 빈번하게 행해진'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일본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꼭 거쳐야 하는 '일본의 입구'이며 '일본 왕래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고베는 다른 개항장에 비해 일본인과 외국인의 일상적인 접촉이 특히 많았다. 「미일수호통상조약」에 의하면 개항장에는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거주지를 조성해야 했다. 그런데 고베의 경우 개항당시 거주지가 완성되지 않아 외국인은 일본인과의 교섭에서 거주지 이외에서 토지와 가옥을 빌리는 것이 인정되었다. 때문에 외국인 거주지뿐 아니라 그 바깥쪽에 잡거지(雜居地)라 불리는 지역에서 외국인과 일본인이 혼재해 있는, 고베 특유의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리적인 면에서, 시가지의 형성에 있어 고베는 외국인들과 자유롭게 활발한 교류와 접촉을 하고 있었다. 외국인과의 일상적 접촉이 가능하다는 고베의 지역적 특수성은 이주민들을 '고베의 인민'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이용되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우리나라(일본:인용자)에 오는 외국인으로서 다른 네 곳의 개항지(開港國)에 가보지 않은 자 많지 않지만 고베를 보지 못한 자 없고 고베를 알지 못하는 자 없다. (중략) 귀국한 외국인의 이야기를 듣는 친구 있어서 일본개항장 중 제일은 고베라는 이 이야기의 내용을 듣고, 고베 이야기를 일본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본은 곧 고베이고 고베는 곧 일본의 대명사가 된다.⁸⁾

일본에 오는 모든 외국인이 고베를 거쳐 간다는 사실은, 고베는 곧 일본이라는 대표성을 갖게 만들었다. 즉 일본에 온 외국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쳐 가야 하는 고베에서 외국인들이 목격하는 모든 것을 귀국한 후 지인에게 말하게 되는데 이때 고베에서 갖게 되는 '심중(心中)의 감각'이 바로 일본에 대한 인식이 된다는 것이다. 고베는 곧 일본이라는 즉, 일본의 대명사라고 하는 대표성을 강조함으로써 고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나갔고 이는 곧 고베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일본을 대표한다는 이러한 강한 자부심은 일본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고베의 인민에게 '천칭의 돌'과 같은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하게 된다.

8) 「開港場たる神戸」(『神戸又新日報』1886.3.24)

우선 외국인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만사(萬事)에 신경을 써서 폐해(弊害)를 없애고 해(害)를 제거하고 종래의 풍속습관을 개량하고 추태 없이 근신해야 하는 것은 이 한가지이다. 이 땅에서 이러한 각오 없다면 개항장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일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⁹⁾

고베인들은 ‘풍속습관을 개량’하고 ‘근신’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일본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고베에 거주하거나 고베를 통해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려는 외국인들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 자각에서였다. 일본인의 대표격이 된 고베인은 우선 ‘외국인이 보고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외국인의 눈앞에 비추어졌을 때에’ ‘외국인에 대해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없이’ ‘외국인이 보고 듣기 쉬운 만사의 일’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면서 외국인의 보고 있다는 시선을 독자에게 의식시켜 나간다. 이 때 외국인이라는 것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남경인(南京人)이라 하는 중국인과 구별하여’ ‘이국인(異國人) 혹은 서양인’이라 칭해진 서구인들의 시선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어떻게 ‘보고 들을’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일본이 서양을 모델로 하여 서양을 <바라보고> 따라갔다고 한다면 고베는 <보여지고> 있다는 시선을 의식한다. 자신을 상대화시키고 ‘외국인의 눈앞에 비추어졌을 때’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고베개량의 원리로 삼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아니, 『유신닛포』는 외국인들이 무엇을 보고 있다고 파악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했을까?

위의 인용문을 다시 살펴보면, 외국인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 모든 일중에서도 종래의 ‘풍속습관을 개량’하고 ‘추태 없이 근신’할 것을 주문한다. 외국인들은 고베인의 ‘풍속습관’을 본다고 파악하였던 것이다.

한 나라의 문명이라는 것은 정치상의 문명과 사회상의 문명 이 두 가지를 합병하여 조직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명은 진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중략) 외국인이 한 나라의 문명을 칭하는 것은 정치, 문학, 기예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풍속습관을 가지고 이를 비평하는 경향이 있다.¹⁰⁾

여기서 문명이라는 것은 메이지 시대 일본의 계몽 이데올로기였다. 후쿠

9) 「開港場たる神戸」(『神戸又新日報』1886.3.24)

10) 「磊落は文明の事に非ず」(『神戸又新日報』, 1886.7.25)

자와 유키치는 문명의 단계를 야만 반개 문명으로 나누고 가장 진보된 상태의 문명을 일본의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 파악¹¹⁾하였다. 한편, 『유신닛포』는 문명을 정치적 문명과 사회적 문명으로 구분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조직된 상태를 완전한 상태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문명이 편중된 ‘문명의 편륜(片輪)’상태라는 것이다.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문명 정치의 골자라 할 수 있는 대의정치가 3,4년 안에 실행될’ 것을 들어 문명화가 실현되었다고 한다. 실제 일본에서는 1889년 일본제국헌법이 발포되고 뒤이어 1890년 처음으로 국회에서의 의회가 개최되는데, 이를 이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정치적 문명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문학과 기예에 있어서도 ‘구미 문명인이 보기에 그다지 부끄럽지 않은 상태’에 만족한다. 그러나 사회상 문명의 골자가 되는 풍속 습관에 대해서는 급하게 개량해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한 나라의 문명이라 칭하는 것’은 정치, 문학, 기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풍속습관’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명국의 감정(鑑定)’ 즉 평가의 준거는 풍속 습관이었고 독자들은 ‘일본의 평판’에 근심하여 풍속습관을 고쳐나가야만 하였다. 오쿠무라 히로시(奥村弘)는 문명을 정치적 문명과 사회적 문명으로 나누고 사회적 문명의 완성을 중요시 하였는데 『유신닛포』의 문명화의 내용에 대한 독자적인 인식이 있다¹²⁾고 평하고 있다. 『유신닛포』는 사회적인 문명 그 중에서도 풍속습관의 개량에 중점을 두고 독자들을 의식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독자들에게 요구한 풍속의 개량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는 다음 장에서 고찰하도록 하겠다.

3. 상(商)도덕으로서의 성(性)도덕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신닛포』는 고베가 ‘문명의 항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베인들의 풍속습관의 개량이 무엇보다 요구되었다. 특히 외국과의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한 장에서 이를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한다. 그렇다면 『유신닛포』가 풍속 개량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또 그 대상은 어떠한 계층이었을까? 본 장에서는 『유신닛포』가 ‘문명의 항구’인 고베를 위해 개량하고자 한 풍속습관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대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福沢諭吉 『文明論之概略』(岩波文庫, 2003), 25-28쪽(초출년은 1875년)

12) 奥村弘 『開港場・神戸からみた「アジア」-『神戸又新日報』を中心に-』(『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緑蔭書房, 1996), 195쪽

『유신닛포』는 고베항이 ‘관서지방에서 가장 좋은 항구로 일본 시장 중 요코하마와 나란히 할 수 있는 변화한 항구’¹³⁾라 하면서 수년 내에 오사카 시장을 압도하여 관서의 상업시장은 고베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항장으로서의 요코하마를, 시장으로서의 오사카를 의식하면서 상업지로 발전을 거듭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연재한 「고베장래의 사업(神戸将来の事業)」¹⁴⁾의 기사에서 고베는 상업과의 관계에서 ‘신체와 식물(食物)’과의 관계로 비유¹⁵⁾되고 있다. 신체를 부양할 수 있는 원동력은 식물에 있다고 하여 고베를 강성(強盛)시킬 수 있는 힘을 상업에서 찾고 있다. 상업지로서의 고베를 상전장(商戰場)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고베는 전쟁터처럼 외국상인들과의 치열한 접전과 경쟁의 장이기도 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문명론의 개략(文明論之概略)』에서 ‘나라와 나라간의 교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를 나라 간에 교역을 하는 ‘상업과 전쟁의 세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왕성한 무역’은 ‘나라가 번영하고 있다는 징후’인데, 이를 통해 ‘국내 인민의 학문과 기술’을 외부로 발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쿠자와는 무역을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을 본다는 면에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 자타(自他)의 구별을 지’¹⁶⁾을 수 있는, 즉 일본인이라는 의식을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다. 한 구역 내에서 집단적 이익을 도모하여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편파심(偏頗心)은 애국심과 내용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외국과의 무역이 일본인이 일본인으로서 자각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고베에서 역시 상업을 통해 고베인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고베의 발전을 위해 상인을 외상(外商)과 경쟁해야 하는 계층으로 위치시키는 것이다.

당시 고베의 외국 무역의 경우, 일본인들은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해외의 무역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대부분의 수출입은 거류지에 있는 외국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유신닛포』는 외국에서 온 외국상인에게 물건을 팔면서 수출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문명의 무역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외국 무역에서 직수출을 확장할 것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고베의 상인에게 ‘진정한 상인’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재산을 모으고 지력을 함하여 일대 상업을 경영’하는 한편 ‘외상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 일’을 고안하여 문명의 항구인 고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상인이 될 것을 요구하는

13) 「神戸港改良卑見 第二」(『神戸又新日報』, 1889.2.24)

14) 「神戸将来の事業」(『神戸又新日報』 1886.9.10/9.11/9.12/9.15/9.16/9.18/9.22/10.2/10.10)

15) 「神戸将来の事業—商法會議所設立の事—」(『神戸又新日報』 1886.9.11)

16) 福沢諭吉 『文明論之概略』, 273-275쪽

것이다. 이때 ‘진정한 상인’에게 필요한 자격을 ‘신용’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고베상인에게 있어 필요한 신용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 상인으로서 신용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상인을, 사행(私行)을 수련하는 품행방정한 사람에게서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행을 다스리지 않고 방탕하게 몸을 무너뜨리고 난폭, 유련(流連)의 추행으로 스스로 호걸이라 칭하는 괴물은 결코 상업 사회의 신용을 널리 할 수 없는 자이다.¹⁷⁾
- 오늘날처럼 도덕이 패퇴(敗頹)하고 불품행(不品行)을 오히려 명예로 하는 현상에서는 상인사회는 도저히 진정(真固)한 신용을 굳힐 수 없다. 머리가 되어 악풍(惡風) 누습(陋習)을 개량하는 위치에 서야 할 신상(紳商)이 방탕(放蕩), 무뢰(無賴)하여 첩을 두고 기(妓)를 초빙하여 어제는 화류계를 유련(流連)하고 오늘은 유곽에서 호연을 베풀어 항상 술과 색 사이를 방황한다는 사실은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¹⁸⁾

문명의 향구인 고베에 필요한 상인의 자격은 ‘신용’이다. 그런데 상인에게 있어서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기초를 상인의 개인적인 도덕에서 찾고 있다. 특히 상인들의 ‘불품행’을 문제시하는데, 개인적인 도덕 중에서도 남녀관계에 있어서의 행동거지를 신용을 얻을 수 있는 윤리적 규범으로 하고 있다. 고베 상인이 가져야 할 상도덕으로서의 신용을 성도덕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위의 인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첩을 두고 예기를 초빙하며 화류계를 돌아다니며’ 남녀관계에 있어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하는 상인 사회의 분위기가 전달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상인 사회에서 여성을 성적욕구의 분출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인의 성문화는 ‘외국인의 신용’을 얻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여 성적 도덕과 외국인으로부터의 신용을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인사회의 성도덕은 개량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며, 이를 고베개량의 주안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덕이 문란하다는 것을 각성시키는 방법으로 당시 상업에 있어 경쟁국이었던 청나라를 이용하고 있다.

한 상인이 화자(話者)가 되어 개항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적는다」는 기고문이 실리는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주로 상업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업사회 외의 일에 대해서는 생

17) 「神戸港改良卑見 第二」(『神戸又新日報』, 1889.2.25)

18) 「行はれ得べき道德論」(『神戸又新日報』, 1887.7.17)

각이 별로 없으나(중략) 구미인(歐美人)과 지나인(支那人)에게 매음하는 일본 부녀자 얼마나 많은지 실로 헤아릴 수 없다. 예를 들어 그 일부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나인을 불러 찬찬이라고 부르며 멸시하는데, 청나라에 가면 청나라 사람이 우리 일본사람을 멸시하는 것 결코 우리 일본사람이 그들에게 대하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들으니, 우리나라 부녀자가 청나라 사람의 외첩(外妾)이 되어 그 땅으로 도항(渡航)하는 자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청나라 부인이 일본인의 외첩이 되어 일본으로 출가하는 자 한 사람도 없다. 이 점에서 청나라 사람에 비해 일본인은 도덕 견고하지 않고 염치 없고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논평을 내릴 때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변명을 낼 수 있을까? 실로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실로 크게는 우리 국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불가능할까? 때문에 내가 깊이 바라기는 정당한 혼의(婚儀)를 거쳐 정처(正妻)가 되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외첩이 되는 자에게는 실로 무거운 세금(重稅)을 부과하여 그 폐습을 교정하고, 공사관 영사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가족 외에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일본부인의 해외도항은 엄금해야 한다.¹⁹⁾

실제 기고자가 상인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일본의 성도덕의 문제를 청나라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청나라 사람이 일본인을 멸시하는데 그 이유는 일본 여자들이 매음을 하며, 청나라로 가서 청국사람의 첩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여성들이 몸을 파는 행위는 ‘본연적으로 자연스럽고 보이는 사회적 산물’이었다. ‘집안을 위해 봉사한다는 짐’, ‘세상에서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는 사고’등이 예창기가 되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주는 역할’²⁰⁾을 했다. 화자는 매음을 하며 청나라의 첩으로 가는 여성들의 상황을 성도덕 문제로 연결지어 비판적으로 포착하면서 그들의 다양한 이유를 도덕이라는 잣대로 비판한다. 성도덕에 있어 바로서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도덕성을 애국심이 부족한 결과라고 하여 나라의 수치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 무역에 있어 청나라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경쟁 상대였는데 이러한 경쟁심리를 이용하여 성도덕의 개량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기사에서도 성도덕의 개량을 위하여 청나라는 이용한 것이 보인다.

「호탕한 것은 문명이 아니다(磊落は文明の事に非ず)」라는 이 기사에서는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행동양식으로 ‘호탕(磊落)한 것을 들고 있다. 호탕하다는 것의 예로서 ‘취하여서는 요조미인의 무릎에 눕고 깨어나서는

19) 「日本婦人の洋妾と成る事に付て」(『神戸又新日報』1889.4.14)

20) 村上信彦 『明治女性史 下巻』(理論社,1972), 31-32쪽

당당하게 천하 권력을 장악한다(醉窈窕美人膝 醒握堂堂天下權)’는 정치가들의 행동양식을 들고 있는데, 이를 상인 사회에서 호걸(豪傑)의 행동이라고 이해하고 모방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곽에 드나들면서 몸을 망치는 것을 명예로 아는 기이한 습관을 만들어 냈으며 따라서 상인들이 남녀관계에 있어 문란하게 되는 원인을 ‘호탕’한 것을 중시하는 예로부터의 습관에서 찾고 있다. 또한 호탕한 것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쇠퇴하는 것과 동시에 ‘문명의 길이 열릴 것’이라 함으로써 문명과 반대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호탕’한 것을 중시하는 태도는 ‘동양 중국의 나쁜 풍속’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추태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문명의 호걸’이 아니며, ‘야만국의 호걸’인데 이는 ‘중국풍의 호걸을 추구하는 자’²¹⁾에게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요소를 과거에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호탕’한 것을 중시하는 경향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베 상인사회의 성문화에 있어서의 개량은 가까운 중국을 이용하여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경쟁심을 유발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타자화시키면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진정으로 고베인들에게 성문화에 있어서 도덕성을 요구했는가라는 문제이다. 9회에 걸쳐 게재된 「행해져야 할 도덕론(行はれ得べき道徳論)」²²⁾이라는 사실은 ‘부인에 대한 남자의 품행’에 한정하여 도덕론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에서 남녀관계에 있어서 여자에 대한 남자의 도덕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실제로 행할 수 없는 ‘공론(空論)’이라고 것이다. ‘탁상공론’인 학자들이 남녀관계에 대한 교정책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이익도 줄 수 없다고 하여 실행할 수 있는 도덕론을 제시한다.

문명에 있어서 세계에 자랑할만한 서양 여러 지방의 귀현신사(貴顯紳士)라 하더라도 그 내막을 살펴보면 그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추행이 있다. 그러나 추행을 안으로 하고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교묘하게 추행을 하고 겉으로는 인륜의 대의(大義)를 행하는 것 실로 문명 인민의 미풍이다.²³⁾

『유신닛포』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논을 전개해 나간다. 인간은 원래 유정(有情)의 동물이기 때문에 육욕(肉慾)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완전한 인간에게 도덕이 견고하고 때 묻지 않고 순결한 품행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도덕을 파괴한다

21) 「磊落は文明の事に非ず」(『神戸又新日報』, 1886.7.25)

22) 「神戸港改良卑見 第二の続」(『神戸又新日報』, 1889.2.26)

23) 「神戸港改良卑見 第二の続」(『神戸又新日報』, 1889.2.26)

고 하여 유곽(娼館)이나 찻집(茶亭), 예창기(芸娼妓)를 모두 없애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다. 현실적인 방법은 여자를 대하는데 있어서 성적인 부도덕을 비밀로 하고 공공연하게 추행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실행할 수 있는 도덕론이고 바로 ‘문명인민의 미풍’이라고 하고 있다. 상인 사회를 향하여 성문화에 있어서 도덕적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보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상인에게 상(商)도덕으로서, 보여지는 성(性)도덕을 요구하면서 남녀관계의 개량 원리로 삼았던 것이다.

고베가 문명의 항구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인계층이 주목의 대상이 된다. 상인들이 상도덕으로서 신용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성문화에서의 도덕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인의 남녀관계에 대한 행동의 개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성이 문란한 것을 최소한 감추고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류지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상인이 본국의 상인’처럼 품행방정하지 않아 ‘다행’²⁴⁾이라는 『유신닛포』의 기사는 얼마나 남녀관계의 문란함이 문제가 되었는지, 또한 고베의 개량에 있어 얼마나 외국인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으로부터 보여지고 있다는 의식 속에서의 개량은 성문화에 있어 편의적인 개량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문명의 항구에서의 남녀교제

이제까지 고베를 문명의 항구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외국인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시키며 남녀관계에서 성도덕을 강조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 남녀교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개량하고자 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개항장 고베에서 자유로운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써 클럽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고베에서 해야 할 장래의 큰 사업 중 하나로 클럽을 확장하는 일을 들고 있다. 「클럽창립의 취지」²⁵⁾라는 기사는 교류, 교제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클럽을 ‘문명의 유희소(遊戱所)’라 이름 짓고 ‘문명의 인사’라고 한다면 클럽에 와서 ‘문명의 생활’을 즐길 것을 권하고 있다. 이곳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고 담화하면서 지식을 교환하라’는 것이다. 특히 클럽은 개항장이

24) 「神戸港改良卑見 第二」(『神戸又新日報』, 1889.2.25)

25) 「クラブ設立ノ趣意」(『神戸又新日報』, 1886.1.10)

면서 상업지인 고베에 있어서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교환의 장을 강조한다. ‘다른 직종의 사업자가 한곳에 모이고 회합하여’ ‘서로 아는 바를 확대하여’ ‘사업 발달의 진보’²⁶⁾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부인협회의 창립을 촉구’하며 ‘고베부인사회’도 ‘교제의 습관을 키울’²⁷⁾ 것을 권한다. ‘부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안으로 갇혀 있는 부인사회를 외부로 향하게 하여 ‘활발한 교제습관’을 갖게 하고 ‘문명적인 생각’을 갖게 하라는 것이다. ‘고베 부인사회’²⁸⁾에 대해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 안에서 사회참여 할 것을 권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일본:인용자)에서 남녀교제를 성행시키는데, 부인의 교육의 진보가 필요하지 않다(我国男女の交際を盛ならしむるには婦人の教育進歩を俟つを要せず)」²⁹⁾는 기사를 통하여서 구미 문명국의 남녀교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남녀 서로 동권인 뜻’을 지키고 ‘교제를 밀접하여’ 국가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적인 남녀관계의 경우, 부인이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가라는 사실은 교제를 친밀하게 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부인을 대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하는’³⁰⁾ 남자들의 태도를 개선해야 할 뿐이지, 여성의 교육이 진보되기를 기다려 남녀교제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애써 부인을 남자에게 접하게 해야 한다(勉めて婦人を男子に接せしむ可し)」³¹⁾라는 기사를 통하여 ‘남존여비의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으로 여자로 하여금 남자와 접하게 할 것을 주장한다.

여자의 부형(父兄)인 자는 여자로 하여금 결코 남자와 접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애써 남자와 접하게 해야 한다. (중략) 만일 친부(親父)가 부녀자의 진퇴(進退)를 항상 자유롭게 하고 친구와 자유롭게 교제하게 한다면 의외로 불품행등의 걱정도 없어지고 친부의 걱정을 초래하는 의외의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부녀자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하여 부녀자의 행동을 자유롭게 하고 때때로 근처의 남자와 야외에 산보하자는 권유를 받으면 여자

26) 「クラブ設立ノ趣意」(『神戸又新日報』, 1886.1.10)

27) 「婦人協会の創立を促すの趣意」(『神戸又新日報』, 1887.7.7)

28) 「婦人協会の創立を促すの趣意」(『神戸又新日報』, 1887.7.7)

29) 「我国男女の交際を盛ならしむるには婦人の教育進歩を俟つを要せず」(『神戸又新日報』, 1886.3.14)

30) 「我国男女の交際を盛ならしむるには婦人の教育進歩を俟つを要せず」(『神戸又新日報』, 1886.3.14)

31) 「勉めて婦人を男子に接せしむ可し」(『神戸又新日報』, 1886.5.22)

하여금 동반동유(同伴同遊)하게 하는 것은 부녀자의 비굴을 치유하는 한 방법이다.³²⁾

위의 신문기사의 화자는 여자의 행동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 독자를 향하여 남녀교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서양의 경우, 남녀교제가 친밀하여 즐거움을 부부가 함께하며 미혼의 남녀라 하더라도 함께 산책하고 연극을 보는 등의 즐거움을 함께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을 부덕(婦德)으로 아는 일본의 상황이 남존여비의 폐해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폐해를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여자를 남자와 접하게 시키라는 것이다. 이는 ‘여자의 비굴함을 치유하는 방법’이고 더 나아가 ‘사회문명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남녀교제의 중요성에 관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신문의 독자의 기고문이 게재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인을 남자와 접촉시켜야 한다’는 사실에 동감하여 집에서 실천해 보려고 하나, 집안의 여자들이 무학무식(無學無識)해서 한숨만 나온다고 한다. 따라서 ‘부부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남녀교제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자교육이 충분’³³⁾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남녀교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인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부인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하고 있다. 남녀교제가 먼저냐, 여자 교육이 먼저냐는 것은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를 의식했던 듯, 장기간에 걸쳐 「일본여자교육의 현상(日本女子教育の現状)」³⁴⁾이라는 기사를 통하여 남녀관계와 여자교육 간의 관계를 정리한다.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설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자의 위치를 높’일 수 있는 ‘최대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 ‘여자 교육을 성행’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여성 교육이 절실함을 논하고 있다. 현재의 일본부인의 상황은 ‘중등 이상의 상등사회 부인’은 의복이나 음식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무형의 것을 소재로 한 대화를 하더라도 ‘천박한 일본소설본의 인과응보에 감동’한 것이나 ‘미숙한 배우의 기예를 평가’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중등이하의 부인’은 ‘여자로 장식한 일종의 인형’³⁵⁾과 같다고 한다. 교육받지 못한 일본 부인들의 심각한 상태를 통해 부인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자 교육이 강조되면 될수록 현재의 여성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부정되었다.

32) 「勉めて婦人を男子に接せしむ可し」(『神戸又新日報』, 1886.5.22)

33) 「女子の教育」(『神戸又新日報』, 1886.5.26)

34) 「日本女子教育の現状」(『神戸又新日報』, 1887.1.27/1.28/1.30/2.1/2.5/2.6)

35) 「日本女子教育の現状」(『神戸又新日報』, 1887.1.27)

오늘날 일본 부녀자는 무학무식하다. 그러한 무자격의 부인에게 권력을 갖게 하는 것은 미친 아이(狂児)에게 날카로운 칼(利刀)을 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 위험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중략) 원래 권력이라는 것은 위험한 성질을 갖고 있어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어떠한가에 따라 크게 이익을 내거나 크게 해와 독(害毒)을 만들어 낸다. 이를 이용하는지 오용하는지는 오로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지식이 어떠한가에 있다. 36)

권력은 실력과 함께 오기 때문에 무식한 부인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이는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용’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여성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여자와 재산과의 관계에 대해 후쿠자와 유키치는 여성의 심신 발달을 위해 책임을 주어야 하며 책임의 예로서 재산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³⁷⁾고 하고 있고 자유민권가인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1857~1892)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필요³⁸⁾를 역설한다. 이에 반해 『유신닛포』는 남존여비를 없애는 방법으로 여성에게 재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크게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재산을 부여했을 때 야기될 문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오늘날의 일본부인이 재산(金力)을 갖게 되었을 때는 ‘일신의 존엄을 더하지 못하고’ ‘정당한 품격을 떨어트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상업지로 변창한 곳에서 부인에게 있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성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포착하는 사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는 보고 있는 것으로부터 영향받을 수도 있다는 위협에서였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서양문명국의 오늘날의 남녀관계는 점차 여존남비(女尊男卑)의 폐풍(弊風)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가까운 증거를 말하면 시내를 왕래할 때에 아내는 차를 타고 남편은 옆에서 걷고, 여자 신발 끈이 풀어지면 남자가 묶어주고, 문은 남편이 여닫으면서 아내가 먼저 서는 등의 일은 매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는 바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과연 정당한 남녀동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히려 여존남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³⁹⁾

36) 「日本女子教育の現状(一昨日の続き)」(『神戸又新日報』, 1887.1.30)

37) 福沢諭吉「日本婦人論」(『福沢諭吉著作集』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03), 17-22쪽 (초출년과 초출지는 1885년 『時事新報』)

38) ひろた まさき(『日本女性史4 近代』), pp.24-29쪽

39) 「女尊男卑たらしむる勿れ」(『神戸又新日報』, 1887.5.13)

시내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서양남녀의 행동에 대해 ‘과연 정당한 남녀 동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되물음은 이러한 서양 사람들의 모습에 영향 받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서양 사람들의 행동양식은 고베 사람들에게 특이하고 이질적이라는 생각을 넘어 여성의 세력이 너무 커질지도 모른다는 의식을 형성해 간다. 여성의 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생길 수 있는 ‘여존남비’가 가져올 수 있는 해악은 기존의 일본사회의 ‘남존여비’가 가져온 해악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제까지 ‘하늘에서 즐기는 한 쌍의 나비’⁴⁰⁾같다는 서양 남녀의 교제 모습은 기이한 광경(奇觀)으로 변질되고 남녀교제를 하는데 있어 여성이 교육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다던 논조는 준비되지 않은 여성이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의 해악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에게 어떠한 권력도 줄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버린다. 결국, 보고 있는 것에서 영향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은 기존의 남녀관계에서의 권력구조가 전복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만들었고, 이러한 위기감을 전달하고자 하는 신문의 발화자와 남녀관계의 권력구조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공범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남녀관계에서의 권력구조를 유지시키고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5. 결 론

문명개화기 일본의 다양한 정책들은 직접적으로 서양화를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구미열강의 눈을 강하게 의식한 것이었다. 구화주의(歐化主義)로 대변되는 로쿠메이칸(鹿鳴館)시대는 그렇게 서양을 의식하며 문명화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고베 역시 서양인을 의식하면서 고베의 발전을 도모한다. 그런데 고베의 경우, 서양인은 생활이며 현실이었다. 서양으로부터 온 외교관, 상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해변, 계곡, 길거리 등, 도처에 존재하는 국제 사회였다. 이러한 가운데 『유신닛포』는 고베인들에게 외국인으로부터 보여지고 있다는 시선을 의식시킨다. ‘거류지에 사는 외국 상인’들이 본국의 상인과 달리 성문화에 있어 부도덕해서 ‘다행’이라는 신문의 기사는 얼마나 외국인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유신닛포』는 외국인의 존재를 인식시키며 고베를 문명의 항구로 만들어 가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으로부터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남녀관계에서의 부도덕을

40) 「日本女子教育の現状」(『神戸又新日報』, 1887.1.28)

감추어 드러내지 말라는 편선적인 개량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서양 남녀의 모습은 이에 영향 받을 지도 모른다는 경계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개항장 고베에서의 남녀관계론은 보여지고 있다는 경각심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통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명개화기 남녀관계의 개량을 위한 다양한 인식과 시각 속에서, 고베의 남녀관계론은 여성이 부재되어 있는 개량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더 자유로울 것 같은 열려진 공간에서의 남녀관계에 대한 논의는 개항장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오히려 기존의 남녀관계의 구조를 고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량하고자 하는 주체와 이를 전달하는 매체가 공범관계를 형성하는 이상 진정한 의미의 남녀관계의 개량은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参考文献】

- 神戸外国人居留地研究会(2005) 『神戸と居留地』、神戸新聞総合出版センター、pp.12-13
- (2004) 『兵庫県の歴史』、山川出版社、p.285
- 奥村弘(1996) 『開港場・神戸からみた「アジア」- 『神戸又新日報』を中心に-』、『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緑蔭書房、p.181
- ひろた まさき(1982) 『日本女性史4 近代』、東京大学出版会、p.1
- 福沢諭吉(1885) 「日本婦人論」、『福沢諭吉著作集』 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03、pp.17-22 (초출지는 1885년 『時事新報』)
- 村上信彦(1972) 『明治女性史 下巻』、理論社,1972、pp.31-32

<1차 사료>

- 「クラブ設立ノ趣意」(『神戸又新日報』、1886.1.10)
- 「我国男女の交際を盛ならしむるには婦人の教育進歩を俟つを要せず」(『神戸又新日報』、1886.3.14)
- 「開港場たる神戸」(『神戸又新日報』 1886.3.24)
- 「勉めて婦人を男子に接せしむ可し」(『神戸又新日報』、1886.5.22)
- 「磊落は文明の事に非ず」(神戸又新日報, 1886.7.25)
- 「神戸将来の事業」(『神戸又新日報』 1886.9.10/9.11/9.12/9.15/9.16/9.18/9.22/10.2/10.10)
- 「日本女子教育の現状」(『神戸又新日報』、1887.1.27/1.28/1.30/2.1/2.5/2.6)
- 「神戸遊廓移転の事」(1887.4.30)
- 「女尊男卑たらしむる勿れ」(『神戸又新日報』、1887.5.13)
- 「婦人協会の創立を促すの趣意」(『神戸又新日報』、1887.7.7)
- 「行はれ得べき道德論」(『神戸又新日報』、1887.7.17)
- 「神戸港改良卑見 第二」(『神戸又新日報』,1889.2.24)
- 「日本婦人の洋妾と成る事に付て」(『神戸又新日報』 1889.4.14)

要 旨

日本の開港場は外国との条約締結によって開かれた都市空間である。開港場を通じて、西洋から入ったのは各種の物資や法律、制度などだけではない。そもそも日本にはなかった、男女間の愛を意味する〈恋愛〉という概念も西洋から〈舶来〉されたのである。男女関係を新たに規定するこの言葉は開港場を通じて全国へ拡散、普及されていった。

全国の四つの開港場のなかで新たに造営されたのは神戸であった。神戸はほかの開港場が既存の都市を開港場として指定されたのではなく、1868年1月1日兵庫開港当時小さな漁村にすぎなかった所に作り上げたのである。従って、神戸を構成している人口の大部分は他の地域から移動してきた移住民である。明治の幕開けとともに〈作られた〉都市である。その上神戸は他の開港場に比べて日本人と外国人とに日常的な接触が特に多かったのである。

神戸の日刊新聞として発行されて、神戸という地域社会との密接な関係を基盤として発行された『神戸又新日報』は読者達に常に外国人の存在を意識させながら神戸を「文明の港口」と作り上げようとした。

しかし、『神戸又新日報』が「外国人が見ているので性的に道徳になれ」という指摘は実は男女関係における「不道徳な行為を隠せ」という便宜的な改良に止まっていた。また、神戸で目撃される西洋の男女間における女性を尊重する光景は、日本の男尊女卑の習俗に悪影響を与える危険性があるという理由から警戒された。神戸で模索されつつあった新しい時代に望ましい男女関係の在り方は、みられている警戒心と見ているものに対する危機意識を通じて展開していたのである。

文明開花期の当時の日本社会は、男女関係の改良を目指して社会各層が活発に多様な見解の中に、この傾向をリードする位置にあったはずの神戸では男女関係論をめぐる認識に女性が除外された側面を持っている。もっとも自由で開かれた空間での男女関係に関する論議は開港場という特殊性のなかでもむしろ既存の男女関係の構造を固定化する意図が現れている。改良しようとする主体とこれを伝達する媒体が共犯関係を形成する以上本当の意味での男女関係の改良は不可能だと言え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神戸、又新日報、開港場、男女交際、風俗改良、男女関係、性道徳、商道徳

투 고 : 2007. 5. 31
1차 심사 : 2007. 6. 9
2차 심사 : 2007. 6. 30

住 所 : (139-952) 서울시 노원구 중계1동 우성3차아파트 301동 905호
電 話 : 016-291-6860
e-mail : yisong97@hanmail.net